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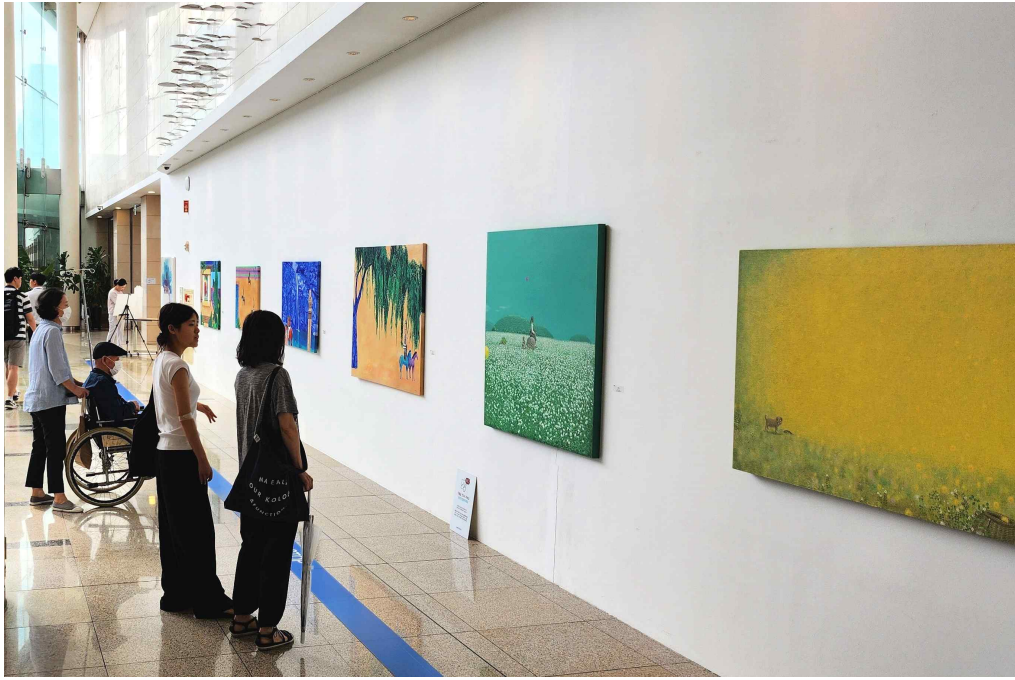
박서영 (서양22) 최윤진 (서양22) 고가현 (공예23) 안수빈 (디자인23) 이연영 (동양23) 조민경 (디자인23) 최지혜 (조소23)

2학기 장학금 수여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8월 2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재)관악회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박서영(22서양/3학년), 최윤진(22서양/2학년), 고가현(23공예/2학년), 안수빈(23디자인/2학년), 이연영(23동양/2학년), 조민경(23디자인/2학년), 최지혜(23조소/2학년) 등 총 7명이며, 이날 권영걸 회장을 대신해 이민주 상임부회장이 장학금을 수여했다. 본회는 성적 또는 소득을 고려해 지급하던 장학금을 지난해 2학기부터는 학생회 임원들에게 수여해오고 있다. 이는 바쁜 수업일정 속에 봉사하는 학생회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 보답하고 또한 학생회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이날 수상자 대표로 장학금을 수여받은 박서영 학생회 부회장은 "우선 이러한 뜻깊은 장학금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생대표로서 장학금 수상은 학생 사업을 이끌고 기획하는 입장에서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회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를 대표하여 수상한 장학금인 만큼 큰 사명감을 가지고 미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안수빈 디자인과 회장은 "장학금을 수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회장으로써 학교에 이바지하고 받은 지원을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이연영 동양학과 부회장은 "이번 장학금 수상을 계기로 입학식 이후로 다시 한번 학교에서 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고, 학업에 더욱 집중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더해서 학교 모든 관계자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조민경 디자인과 부회장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미대 동창회에서 받은 장학금인 만큼 디자인과와 미대 학우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통해 개인적인 부담이 적어진 만큼 생긴 여유를 다시 학우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훗날 저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동창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 또한 생깁니다"며 감사를 표했다. 최지혜 조소과 부회장은 "너무나 좋은 기회로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는 이전에는 크게 느껴볼 수 없었던 책임감, 결단력, 리더십 등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대학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은 각 관계들마다 저에게 다양한 감정들과 그 감정들을 대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다채롭게 펼쳐질 앞날에 또 무엇을 배우고 성장해 나갈지 하루하루가 기대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미대동창회께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회는 매년 2회(1, 2학기)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본회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힐링아트-서정을 담다'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지난 8월 23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병원 내 갤러리 SPACE-U에서 '힐링아트-서정을 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이혜민(74응미), 서효숙(81회화), 류지선(89서양) 동문 등 3명으로,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한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3인의 작가는 환우분들과 편안한 정서를 나누고자 하는 전시 취지에 맞추어 따뜻한 위로가 되는 작품들을 출품했다. 한편 '힐링아트'는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어, 병원 측 요청으로 올해는 4월 전시에 이어 두 번째 열리고 있다.



S-미술아카데미 가을학기

본회 S-미술아카데미가 오는 9월 2일에 미술실기아카데미 가을학기를 시작한다. 오는 12월 14일까지 15회에 걸쳐 진행되는 가을학기의 강좌는 '프리페인팅'(강사 임철순), '유화'(강사 안성규), '기초소묘'(강사 김호준), 'AI와 테블릿PC로 굿즈 작가 도전하기'(강사 이필두), '여백과 묵향의 힐링-사군자·문인화'(강사 변영혜), '수채화'(강사 박혜령), '자유크로키'(강사 없음)와 특강으로 서로재에서 진행되는 '나전소반 만들기'(강사 나성숙) 등 8개다. 한편, S-미술아카데미의 미술실기아카데미는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백악미술관 2층)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 010-8605-8065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서울대총동창회 캘린더 수록작품 선정



본회는 2025년도 서울대총동창회 탁상용캘린더에 수록할 작품 13점을 선정했다. 지난 7월 21일까지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나성숙, 조은경, 안기순, 이환범, 이승은, 김소선, 강재희, 이강화, 박도현, 안성규, 남재현, 박혜영, 박충흠 동문의 작품이 선정되었

다. 열세 명의 동문 작품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달력에 수록되어 오는 11월 서울대 전 동문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사진=2024년도 캘린더)

회장동정



의정부 국가디자인협력지구 자문위 참석

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본회 회장이 지난 8월 22일 의정부시가 개최한 '국가 디자인 협력 지구' 조성을 위한 2차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국가 디자인 협력 지구 조성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이하 CRC) 활용을 위해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CRC는 의정부시에서 반환된 여러 미군기지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주목을 받는다. 반환된 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기지이기 때문이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권회장은 "디자인과 생활기능을 연계한 자족도시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써 기본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사업의 지향점을 강조했다. 또한, "동측은 디자인 생산단지인 디자인중점구역으로, 서측은 시민을 위한 자연친화적 생태공원 구역, 중간지역은 소비와 생활을 위한 디자인복합문화구역으로 구획할 수 있다. 그곳에는 디자인 협력지구의 중심이 되는 상징물 건축물 또한 필요하며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적용해 디자인산업의 상징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관악수목원 '한국-인도 현대미술교류전'

본회와 모교(학장 정의철), 서울대학교 농생대학(학장 장판식)의 협력으로 한국-인도 현대미술교류전이 지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모교 동양화와 신하순 교수가 임상준(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관악수목원장에게 제안해 개최하게 된 이번 전시는 관악수목원전시장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미술전으로, 그동안 식물종자와 괴목(槐木), 사진 등을 상설전시하던 공간에서 동문을 포함한 한국과 인도 작가의 미술작품을 선보였다. 지난 8월 20일 열린 전시 개막식은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KICAA(한국인도 현대작가교류회)회장인 이민주 본회 상임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의철 모교 학장, 장판식 농생대 학장, 인도대사 부부, 안양시장, 안양시의회회장, 오용길(65회화) 동문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인도대사관은 인도식 튀김만두인 사모사와 인도 차(茶)를 제공하여 문화교류의 장에 활기를 더했다.

모교소식



제78회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제78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9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체육관(71동)에서 개최됐다. 학위수여식은 오전 10시에 음대 악단 'SUN Wind Ensemble'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모교(학장 정의철)는 학사 32명, 석사 21명, 박사 12명 등 총 65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수여된 학위의 학과 및 전공별 인원은 다음과 같다. 동양학과 학사 5명, 석사 2명, 서양학과 학사 10명, 석사 3명, 조소과 학사 4명, 석사 3명, 공예과 도자공예전공 학사 2명, 석사 3명, 공예과 금속공예전공 학사 2명, 디자인과 산업디자인전공 학사 6명, 석사 1명, 디자인과 시각디자인전공 학사 3명, 석사 2명, 협동과정 미술경영 석사 5명이 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는 미술학과 동양화 전공 1명, 미술학과 서양화·판화 전공 1명, 미술학과 조소 전공 1명,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 8명, 협동과정 미술경영 1명에게 수여됐다.

나가오카 겐메이 특별강연



모교가 지난 7월 19일 모교 74동 오디토리움에서 디앤디파트먼트(D&DEPARTMENT) 설립자 나가오카 겐메이의 방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특별 방한의 계기가 된 신간 '디자이너 마음으로 걷다(2024, 안그래픽스)'는 디앤디파트먼트가 설립되기까지 나가오카 겐메이가 발행한 107편의 글을 엮은 책이다. 디앤디파트먼트는 유행이나 시대에 좌우되지 않는 보편적인 디자인, '롱라이프 디자인'을 지향하는 브랜드로, 세계로부터 수집한 생활 잡화와 가구를 판매한다. '그 토

지에서 나온 것은 그 토지에 가서 즐긴다'라는 사고가 이상적이라고 설파하는 나가오카 겐메이의 프로젝트 디앤디파트먼트는 현재 서울과 제주에도 지점을 열어 운영되고 있다. 책과 디자인, 지역, 가게, 그리고 브랜딩에 관해 이야기한 이번 강연은 모교 재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미대극회 116회 정기공연 준비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이하 미대극회)는 1966년 시작한 모교 소속 연극 동아리이다. 미대극회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새로움을 좇는 도전 정신으로 대학 연극 예술을 선도해 오고 있다. 미대극회는 연출, 기획, 배우, 무대, 조명, 음향, 의상, 영상, 디자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약 세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연 2회 정기 공연을 개최한다. 미대극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모교 14동 인문소극장에서 116번째 정기 공연 '심판'을 무대에 올린다. '심판'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두 번째 희곡으로, 판사·검사·변호사·피고인이 펼치는 설전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베르베르 특

유의 상상력과 유머가 빛나는 이 작품은 수술 중 사망한 주인공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천국에 도착하여 변호사·검사·판사를 차례로 만난다. 주인공의 지난 생을 돌아보며, 다음 생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미대극회는 베르베르의 희곡을 재해석해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미대극회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공연 준비를 시작했으며, 공연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주 4회 이상 모교 두레문예관에서 열성적으로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보다 완성도 높은 연극을 위해 지난 115회 정기공연 '어머니'의 주연을 맡은 김나연(23동양) 동문이 연기 감독으로 배우들에게 연기 지도를 편달한다. 연기감독 김나연 동문은 "입학 이래 계속해 마음을 바쳐온 사랑하는 미대극회에서, 이번엔 배우가 아닌, 연기감독이라는 이름 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개강을 1주 앞둔 지금, 매주의 연습은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고 할 수 없음에도 마냥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낼 수 있을 때 욕심을 양껏 내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조바심이 나고, 고민이 쌓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함께하는 추억을 해치지 않도록 감시하려 합니다."라고 공연 준비 소감을 전했다. 배우를 맡은 유영선(21서양) 동문은 "내 손으로 직접 올리는 연극이라 뜻 깊고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만 완성될 수 있는 장르라 더 애정이 갑니다"라고 공연을 준비하는 마음과 극예술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조형연구소, 연구시설 평가 최우수 선정

모교 부속기관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소장 정의철)가 2024년도 예술체육계 개별연구소 평가에서 최우수 연구소로 선정되었다. 조형연구소는 미술, 공예, 디자인 분야 전반의 학술 연구와 사회적 수요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서울대학교 유일의 시각예술 연구기관이다. 이번 평가는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총 74개의 연구소 중 예술체육계 개별연구소 부문에서는 조형연구소가 최우수(A1) 등급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스포츠과학연구소(우수, A2)와 동양음악연구소(보통, B)가 이었다. 조형연구소는 이번 평가로 2015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5년과 2018년에는 예술체육계 연구소 5곳 중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2021년 평가에서는 우수(A2)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성과는 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 역량과 성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조형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이래, 미술 분야의 다양한 학술연구활동은 물론 미술 분야의 사회공헌사업과 전시기획 등을 통해 조형예술 분야의 역사 및 이론 연구 발전에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우석갤러리

제15회 관악사 문자동행전



모교 우석갤러리에서 지난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제15회 관악사 문자동행전'이 열렸다. 문자동행전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서예 동아리 화목회(지도교수 이승우)의 정기 전시로, 매년 가을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작품으로 선보여 왔다. 화목회는 서울대학교 교수와 직원을 중심으로 서예를 즐기는 모임이다. 2006년 창립 이래 매년 교내외에서 전시를 올리고 있다. 올해는 문화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모교 74동 우석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이에 관해 양일모 화목회 회장은 "전시 공간을 찾지 못해 어려워하던 중 우석갤러리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미술대학 정의철 학장님과 서양학과 김정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화목회는 서울대 교직원 뿐 아니라 서예에 관심 있는 모교 재학생에게도 서예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32명 중 6명이 모교 동양학과 대학원 재학생이다.

서울대소식



‘SBS문화재단과 협약식 및 시상식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은 지난 8월 7일 ‘SBS문화재단 그랜드 퀘스트 프라이즈’ 기금 협약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학교와 SBS문화재단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적 난제 연구를 지원하고, 신진 과학자 양성을 위해 그랜드 퀘스트 프라이즈를 수여한다. ‘SBS문화재단 그랜드 퀘스트 프라이즈’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난해 ‘SBS D포럼 2023(SDF)’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시한 과학기술 분야의 난제 해결에 더 많은 석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서울대와 SBS문화재단은 매년 중장기적 과학기술 난제를 연구하는 신진 과학자를 2명씩 선정해 시상하고, SBS문화재단은 수상자에게 3년간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하계강좌 개최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OIA)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ISP/ International Summer Program)를 진행했다. ISP는 전 세계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초청하여 5주간 진행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학문탐구의 기회를 가진

다. 학생들은 다양한 특별활동을 하면서 한국문화와 사회를 폭넓게 경험하는데, 매년 참여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ISP는 처음 시작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5,000명 이상의 전 세계 학생들이 참여했다. ISP는 AI 공학부터 전통 한국 문화까지 30개 이상의 강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할 수 있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서울대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 중인 타 대학의 교수를 초빙했다. ISP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최대 3과목, 9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ISP의 수업선택자유는 학생들이 관심사를 자유롭게 탐구하고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앞으로도 서울대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 지식과 문화를 나누는 ‘학문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대 다양성보고서 발간

서울대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최근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위원장 민은기)가 발간한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2326명 중 여성 전임교원은 479명으로 20.6%를 차지했다. 서울대 여성 전임교원은 2021년 13.0%에서 2023년 20.6%까지 점진적으로 비율이 높아졌다. 정부가 2020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통해 모든 국립대가 2030년까지 달성하도록 권고한 여성 전임 교원 비율 25%에 근접해가는 추세다. 한 해 신규임용 교원 중 여성 교원 비율도 늘고 있다. 2023년 신규임용 교원 123명 중 38명은 여성으로, 처음으로 신규임용 여성교원 비율이 30%에 근접했다. 또한 다양성보고서는 ‘전임교원의 다양성 임용 비율’을 도출

했다. 여성, 타교 학부 출신, 외국 국적 중 한 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전임교원 비율은 38.3%로 지난해 36.9%보다 상승했다. 학부 재적생 총 2만515명 중 여학생은 7274명으로 35.5%였다. 지난해(36%)보다 약간 하락했다. 학사과정 여학생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석사·박사과정 여학생 비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과학·기술·공학·수학의 STEM 분야에선 여전히 여학생 비율이 낮았다.

동문창업네트워크 개최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오는 9월 4일 수요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2024 서울대학교 동문창업네트워크’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서울대학교 동문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모여 창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특별한 자리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기업들을 응원하며, 그들의 성공을 위한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행사와 더불어 참가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통문창업기업 소개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다.



학생사회공헌단 성과공유회 개최

서울대학교 학생사회공헌단이 지난 6월 24일 관악캠퍼스 글로벌사회공헌단 2층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생사회공헌단의 대주제는 ‘동행(同行)’, ‘함께 걷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팀별 활동을 진행했다. ‘다시 만난 세대’, ‘배프’, ‘꿈꾸는 거북이’, ‘재생과 치유’, ‘컬러폴리’ 등 다섯 팀이 느린 학습자,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이동 취약자, 폐지 수집 어르신,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과 동행을 꿈꾸며 아이디어를 펼쳐냈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제8회 온라인 테마 도서전시 개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은 지난 8월 9일부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시 컬렉션에서 ‘제8회 온라인 테마 도서 전시 - 책으로 들여다보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개최한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와 문화 콘텐츠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학교 지식기반 문화예술나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전시는 본 사업의 일환인 ‘온라인 테마 도서 전시행사’로 개최된다. 이번 도서전의 주제는 ‘떨레야 떨 수 없는 현대 인간과 동물의 관계와 역사로, 천명선 교수(서울대학교 수의학과)가 추천한 도서 12선과 추천사, 관련 미디어 자료 등이 전시된다. 전시에 참여한 천명선 교수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의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수의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을 맡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일반인에게는 조금 생소한 수의인문사회학 분야로 인간-동물 관계와 동물 질병의 과학적·역사적·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연구하고 있다.

총동창회소식



카트만두 현지 공헌활동을 마친 44인의 네팔공헌단

2024 하계 글로벌 SNU 공헌단 지원

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지원하고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이 결성한 2024 하계 글로벌 SNU공헌단이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마치고 왔다. 올해는 재학생 단원과 지도교수, 스태프, 총동창회 파견 동문 등 총 94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페루, 네팔 등 세계 4개국과 전북지역으로 봉사 활동을 떠났다. 인도네시아공헌단은 지난 7월 19~28일 학생 단원 15명과 현지 대학생 단원이 협력해 롬복지역의 대학 미진학·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관광·비즈니스 한국어와 컴퓨터기술 등을 가르쳤다. 김종섭 회장이 8 억원을 후원해 삼익악기와 파트너를 맺고 2022년부터 진행한 5년 장기 프로젝트다. 우즈베키스탄공헌단은 지난 7월 29일~8월 8일 사마르칸트에서 유아 교육·의료 나눔 등을 진행했다. 유일하게 동문이 참여한 네팔공헌단 44명은 지난 8월 5~14일 카트만두 인근 교육소의 지역 학교에서 예체능, 보건·위생 교육나눔, 문화나눔 등의 공헌활동을 펼쳤다. 해당 활동에 총동창회가 7000만 원을 지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선 동문 단원 3명이 전북대 학생들과 3박 4 일간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성과 흥미 탐색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총동창회는 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태옥동문 2억원 기부

총동창회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한 故조남일(61토목공학) 동문의 부인 이태옥 (63약학) 동문이 총동창회에 장학금 1억원을 추가 기부했다. 조동문은 투병 중이던 2019년 1월 장학금을 기부하고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평생 공직 자로 근검절약해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고도 아내가 기부를 이어가주길 바랬다며, 이태옥은 조동문의 유언에 대한 약속을 5년이 지난 지금 지킨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기부를 약정한 이병훈(81경영) 동문도 지난 7월 17일 12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7월 3일에는 김진수(62농공) 동문이 총동창회 사무처를 직접 찾아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2024 홈커밍데이 동문나눔한마당

- 일 시 : 10월 20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대 관악캠퍼스 버들골, 풍산마당(우천시 실내-종합체육관)
- 행사내용 :
 - 캠퍼스 자율탐방 (11:00~13:00, 캠퍼스 일대)
코스, 기관별 도슨트 등 자세한 안내는 추후 홈페이지 게시
 - 참가등록 (11:00~13:00, 풍산마당) 본인확인 및 행운권 접수
* 무더위 안전상 이유로 도시락 대신 간단한 간식 및 생수 제공
 - 식전행사 (11:00~13:00, 버들골)
재학생 동아리 활동 참관, 미니게임 참여, 사회공헌 기금 모금
* 다양한 푸드트럭 운영(10:00~17:00)
 - 공식행사 (13:00~16:30, 풍산마당)
개회식,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행운권추첨(경품수령시 신분증지참) 등
* 입학·졸업 10·20·30·40·50·60년 동문대상 이벤트 예정
- 참여방법 : 양식에 맞춰 2024년 10월 4일(금)까지
문자메시지(1599-7704) 또는 이메일(member@snu.or.kr)로 사전신청
- 협찬안내 : 입금시 이름,학과,입학연도 표기(특별과정은 이름, 과정명)
- 협찬금 : 10만원 이상(우리은행 1005-401-137376 서울대학교총동창회)

9월 조찬포럼

- 일 시 : 9월 12일(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서울시청 앞)
- 강연자 :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前외교통상부 장관
- 주 제 : 2024년 미국대선 - 전후 국제질서의 변곡점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 기재후 참가비 입금
문자메시지(1599-7704) 또는 이메일(member@snu.or.kr)로 사전신청
- 참가비(조찬/도서제공) : 5만원(신한은행 140-013-055991 서울대총동창회)
* 식사 예약으로 9월 6일(금) 이후 신청취소하는 경우, 참가비 환불 불가

9월 국토문화기행

- 일 시 : 9월 26일(목) 오전 9시
- 답사지 : 고택탐사/우암송시열사적공원, 남간정사 등(대전 동구, 2시간소요)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 기재후 참가비 입금
문자메시지(1599-7704) 또는 이메일(member@snu.or.kr)로 사전신청
- 참가비 : 5만원(신한은행 140-013-055937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행사문의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My Own Ring

서울대미대동창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운영하는 에스아트몰에서 'ACCESSORY' 카테고리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제작되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반지를 소장해보세요.



sartmall.com



S-ARTMALL

서울대 동문 특별할인 제공
총동창회몰 'Mall SNUA' 입점(브랜드관 S-ARTMALL)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4.8.1-29)

- * 평생회비 부수연(57응미)
- * 광고후원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50만원
김소선(63조소) 20만원
한국화회 20만원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하여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 · 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 · 인사 · 수상 · 개업 · 결혼 · 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백현옥(58조소) 본인상
원로조각가 백현옥 본회 고인이 지난 8월 25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충청남도 장항 출생으로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1984년 인하대에 교수로 부임했다.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서울조각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 근정포장 및 2021년 제35회 김세중조각상을 수상했다. 괘 비행기 사고 위령탑(천안 풍산공원)과 KAL여객기 피격희생자 위령탑(망향의 동산) 등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축하기 · 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자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 · 단체 · 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S-미술아카데미

2024 가을학기

2024 미술실기 아카데미 가을학기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10-13시	유화 (초, 중급) 안성규	AI와 테블릿PC로 굿즈 작가 도전하기 (디지털 페인팅) 이필두			
14-17시	자유크로키 (누드) 강사없음	기초소묘 (기초도형에서 인체소묘까지) 김호준	프리페인팅 (자유창작) 임철순	여백과 목향의 힐링 (사군자, 문인화) 변영혜	수채화 (초급, 중급) 박혜령

특강

나전소반 만들기

나성숙

화 10-13시
복춘 서로재

8회 60만원
(재료비 포함)

접수기간
9/2(월)~9/8(금)

접수방법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납부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기간
9/2(월)~12/14(토) 15주 / 공휴일 휴관(보강 진행)
오전반: 10~13시 / 오후반: 14~17시

강의장소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9길 16 백악미술관 2층)

수강정원
강좌별 15명(신청순 접수, 복수신청 가능, 10명미만 폐강)

수강료
강좌별 45만원(강좌에 따라 재료비 별도)
자유크로키 강좌 30만원(모델료 별도)

강사진 및 아카데미 안내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커뮤니티->공지사항)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9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2024

9.21 Sat.
10.23 Wed. - 11.5 Mon.

광화문광장

광화문사랑어린이그리기대회
서울사랑어린이그림공모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한국기초조형학회 국제초대전시
광화문아트포럼 선정 올해의 작가
아시아현대미술청년작가공모전
2024GIAF초대작가전시
아티스트 토크 - 김형대의 걱정과 도전의 시대
국립목포대학교 - 디자인위크M 전시

주최 |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관 | 전문예술단체 광화문아트포럼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의회 종로구 한국교육방송공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사단법인 서울미술협회



뒷것 김민기(69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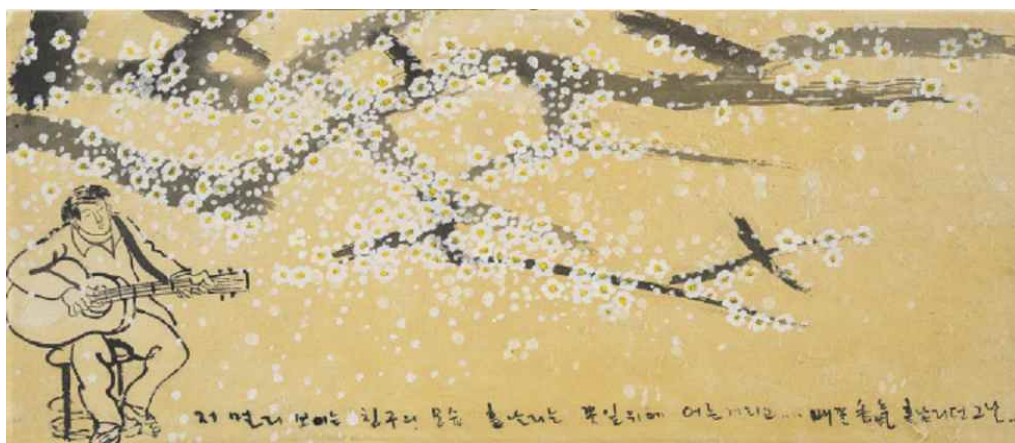


김민기 동문이 지난 7월 21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고인은 '아침이슬' 등의 명곡을 만든 작곡가이자 학전 소극장으로 대학로 문화를 바꾼 공연 기획자·연출가였다. 1951년 전북 익산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김동문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미술에 두각을 나타냈다. 모교 재학중(◀사진) 음악활동을 시작한 김동문은 1971년 양희은의 '아침이슬' 작곡가로, 자신의 독집 음반 '친구/갈'의 작곡가 겸 가수로 본격적인 음악인생을 열었다. 그의 독집 음반은 당시 흔했던 외국 번안곡이 아닌, 대부분 자작곡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한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1970년대 김민기 음악의 가치는 당시 시대상과도 맞물려 있다. '아침이슬' '친구' 등 김민기의 노래는 문학적 은유로 시대를 노래했지만, 김민기의 노래는 대부분 방송금지됐다. 제도권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진 김동문은 당대 저항시인 김지하가 쓴 희곡 '금관의 예수'에 노래를 붙여 무대에 올랐다. 이는 김동문이 무대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 군에 입대한 김동문은 퇴역하는 선임하사를 위해 '늙은 군인의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1970년대 야학 활동을 하며 노동자의 삶에 관심을 기울였고, 탈춤이나 판소리 등 전통음악도 공부했다. 1984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결성해 음악 활동을 이어간 김동문의 삶은 1991년 대학로에 학전 소극장을 개관하며 다시 달라졌다. 특히 1994년 초연한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학전을 대표하는 작품이자, 소극장 뮤지컬의 이정표가 됐다. 누적 관객 70만 명, 최초의 라이브 뮤지컬, 최초의 장기 상설공연, 최초 중국진출 등 기록을 남겼다. 학전에선 고 김광석, 동물원, 들국화, 안치환, 나윤선의 콘서트도 열렸다. '모스키토', '의형제', '개똥이' 같이 한국의 정서와 노랫말이 살아있는 창작 뮤지컬도 공연됐다. 2004년부터 김동문은 어린이 공연에 집중했는데 수익성이 낮아 학전 경영난으로 이어졌다. 2013년 학전 그린소극장을 폐관했고, 지난해엔 김민기의 위암 진단과 함께 학전 블루소극장의 폐관 결정까지 내렸다. 학전은 33년간 총 359편의 작품을 기획·제작한 뒤 지난 3월 폐관했다. 현재 이 자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인수해 어린이·청소년극 중심의 공연장 아르코꿈발극장으로 만들어 지난 7월 17일 문을 열었다. 아르코꿈발극장은 1층에 학전의 역사를 전시하는 아카이빙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중음악과 공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김동문이었지만, 그는 생전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를 극도로 꺼렸다. 학전 폐관 이후인 지난 4월부터 3부작으로 방영된 SBS 다큐멘터리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는 고인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줬으나, 김동문은 끝내 방송사의 인터뷰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김민기가 갔다, 70년대라는 내 창 의 커튼도 내려갔다'

김병중(74회화)



'시절은 가고 노래만 남아. 한지에 수묵채색, 81.5x34.5cm, 2024

'밍기형을 떠나보내며'

**"사방으로 퍼져나간 그의 노래, 저항투사로만 가두면 안돼
따뜻한 정서와 약자에 연민, 그는 자유 들녘에 선 음유시인"**

김민기가 갔다, 그와 함께 칠십년대라는 내 창 의 커튼도 내려지는 것을 느낀다. 그렇다. 누군가는 본인이 의도하든 아니든 간에 한 시대의 창(窓)이 되는 경우가 있다. 허다한 사람들이 육십년대를 전혜린이라는 창을 통해 바라보았던 것처럼 나는 김민기라는 창을 통해 나의 칠십년대를 되돌아보곤 했다. 서울대 미대 선후배 사이였던 그와 나는 처음 공릉동 옛 서울 공대 연병장에서 만났다. 운동장 아닌 연병장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곳에서 교련실습이 열렸던 까닭이다. 우리들 스무 살 푸르른 청춘에게는 품새가 맞지 않은 교련복을 입고 패잔병처럼 어슬렁거리며 그곳에 모이곤 했다. 교관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뒤돌아보니 하회탈처럼 웃으며 거기 밍기형(우리는 그 당시 김민기를 그렇게 부르곤 했다) 이 있었다. '나 좀... 이따가 일이 있어서... 좀. 부탁해도 될까?' 대리 출석 이야기였다. 그는 쉬운 말을 몹시 어렵게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하게 웃으며 일어난 그는 그렇게 연병장 아닌 운동장을 빠져 나갔다. 그는 당시 교련학점을 못 받아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 밍기형이 어느 날 신입생 환영 행사에 불리어 나왔다. 그렇다 불리어 나온 느낌. 그는 사람들 앞에 힘차게 걸어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주변이 온통 배밭이었고, 그 꽃잎이 분분히 흩날리고 있었다. 그 당시 미대에는 유독 노래 잘하는 선배들이 많았다. 조소과의 이정선과 음미과의 현경과 영애 다음에 밍기형 차례였다. 쑥스러워하며 통기타를 들고 엉거주춤 선 그를 향해 친구! 친구! 가 외쳐졌고 그는 그 노래를 불렀다.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그렇다. 그렇게 나의, 아니 우리들의 칠십년대 또한 노래가락처럼 흘러갔고 밍기형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갔다. 하지만 그가 그 스무살 무렵 만들었던 노래는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마치 무슨 비밀결사의 부호들처럼 퍼날려졌다. 칠십년대를 훌쩍 넘더니 팔십년대 구십년대 아니 시대를 넘어 마치 거센 물결처럼 혹은 함성처럼 번져나갔던 것이다. 늘 뒤로 빠지기 잘하던 그는 어느새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있었고 때로는 투사와 전사의 깃발로 펄럭였다. 그럴때마다 나는 좀 불편한 느낌이 들곤했다. 분명 그의 남저음 속에는 저항의 몸짓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의 노래에는 곰삭아 우러낸 우리네 따뜻한 정서와 넉넉한 마음이 있다. '어두운 비' 내려오는 세상도 해맑게 바라보려는 '아름다운 아이'의 시선이 있고 분노와 투쟁을 넘어서서 한사코 햇빛 환한 쪽으로 가려는 발길이 있다. 무엇보다 그의 노랫말에는 증오보다는 약한 것들에 대한 연민이 먼저였다. 병들어 누운지 3년 된 부모를 두고 서울로 가야만 하는 사연이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늙은 군인이 있으며 얼굴 여윈 사람이 있고, 그리고 꽃 없는 화단에 꽃을 피우려는 아이가 있다. 심지어 곧 죽을 늙은 개 '백구'에 대한 연민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못 집어내는 색채 언어가 있다. '새 하얀 눈' '붉게 떠오르는 태양' '들의 푸르름' '어두운 비' '황혼에 젖은 산'... 허구한 날 실기실을 비운 미대생은 그렇게 언어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그 뿐인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우리의 정감어린 말들이 있다. '서산' '무당벌레' '오솔길' '벌판'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움' '떨림' '눈물' ... 그의 세계를 이룬 것은 사회적 상상력과 서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내가 아는 그는 한마디로 자연과 자유의 들녘에 선 음유시인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김민기를 읽고 또 읽어낼 것이다. 부디 이 부분이 짚어질 수 있기를. (출처=문화일보/박동미 기자/2024-07-24)

동문탐방

대한민국예술원 신입회원
김형대(56회화)



작품세계의 근간은 무엇인지?

“내 작품 세계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내가 자라면서 눈에 익힌 한국적 전통”이라고 답해 왔다. 이는 결코 한국의 요소들을 단지 그대로 인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오면서 느낀 ‘현실적인’ 한국의 또 다른 단층을 추상성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다. 직설적인 방법을 피하고, 요체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은근히 재창출한다는 것이다. 내 작품 세계는 우리의 인식 혹은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지 과거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 생명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고 묻고자 한다. 그 생명력을 나의 추상작품에 나타내려 한 것이다. 추상화는 기본적인 것이고, 색의 아름다움, 색의 변화, 계절이 다 담겨있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추상회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은근히 재창출한다는 것이다. 내 작품 세계는 우리의 인식 혹은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지 과거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 생명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고 묻고자 한다. 그 생명력을 나의 추상작품에 나타내려 한 것이다. 추상화는 기본적인 것이고, 색의 아름다움, 색의 변화, 계절이 다 담겨있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추상회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시기별 대표작과 그 키워드를 꼽는다면?

6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은 ‘생성’, ‘환원’ 시리즈이다. 이 시기를 ‘격정과 도전의 청년시절’이라고 부르고 싶다. ‘생성’ 시리즈는 유년시절을 보냈던 여의도의 셋강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들이다. 격렬한 제스처와 마티에르를 특색으로 하는 ‘환원’ 시리즈 등도 이때 제작되었다. 7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에는 다색목판화들이 있다. 작가로서 그릇을 키운 ‘탐구와 체화’의 과정이 이 작품들에 서려있다. 특히 중요했던 성과는 쇠서, 단청과 같은 한국의 고건축에서 영향을 받아 전통미를 발견하고 나만의 조형언어로 승화시킨 것이다. 나뭇결의 유기적인 형상, 전통건축의 요소에서 비롯된 직선적인 형상, 그리고 전통적인 색채가 어우러져 나만의 독창적인 목판화를 만들었다. 다색목판화로 이룬 작업적 성과는 ‘후광’ 연작으로 이어진다.

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후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후광’ 연작의 전면 추상형식은 화면 전체를 수평·수직으로 분할한 화면 안에서 중층의 색 면과 두터운 마티에르를 동시에 보여주는 표현에 도달한다. 뒤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한국 전통 포목(布木)이나 물결로부터 영감을 얻은 ‘후광’ 연작의 조형언어를 계승하면서, 작품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단색조 작품에서 보여주는 씨줄과 날줄로 얽혀 시각적이면서도 촉각적인 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세계가 ‘후광’ 연작에 이어 깊고 투명한 빛의 공간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본다.

오랜 기간 활동하며 작가로서 많은 족적을 남겼는데, 그 원동력은?



학창시절부터 쌓아 온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나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1950년대 모교의 환경은 40명 동문들이 비좁은 한 공간에서 작업해야 할 만큼 열악했다. 그 당시 실기실 공간을 확보하려고 새벽에 등교할 만큼 작품활동에 몰입했다.

수위실에서 잠들어 있는 수위를 깨워 실기실에 들어가곤 했던 것이 생각한다. 그때 나는 동료들과 다른 특이한 작품을 그리곤 했다. 일반 구상회화가 화단의 주류이던 시절 인물까지 원색조로 그리는 등 과감한 시도를 했다. 당시 서양화전공을 한 후 디자인과 교수로 계셨던 김정황 교수께서 나를 보시고 미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라고 격려해 주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격려는 당시 화단에 저항하며 나 자신의 화풍을 키워 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좋은 동료와 선생님들을 만났던 것도 나의 열정과 마음가짐을 그리고 작업세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동료였던 김종학 화백도 나와 함께 성실한 학생이었고, 당시 불란서에서 귀국하자마자 모교에서 강의를 했던 권옥연 화백도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선생님이다. 이에 더해 파리에서 불고 있던 앙포르멜 운동과 액션페인팅 등에 대한 예술론 열강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나는 침이 튀길 정도로 열강을 해 주시던 권 교수님의 바로 앞에 앉아 수업을 들었다. 또, 베르나르드 뷔페, 한스아르통 등 당시 파리화단의 작가들의 작품 감상하며 작품에 대한 내 열정과 동기를 키웠다.

‘환원’ 시리즈도 모교 재학 중에 작업했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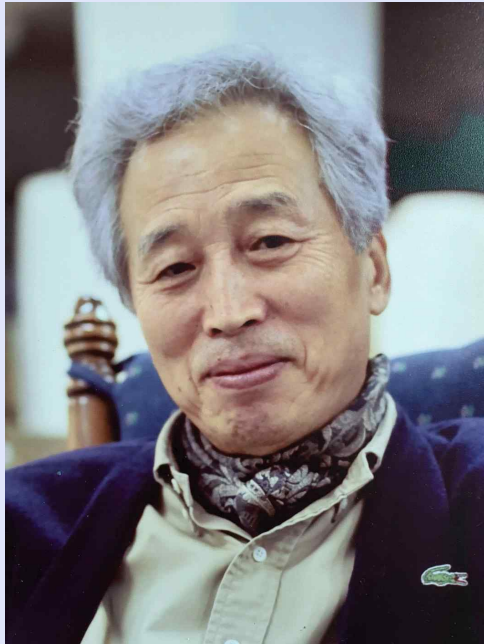
‘환원’이 탄생하던 해에 나는 복학생이었지만 58학번 동료들과 낮 수업시간에는 인물, 정물, 풍경을 그리고 수업 마친 후부터는 남대문에서 맞춰온 대형캔버스에 추상화작업으로 밤을 지새곤 했다. 당시 10명의 동지들과 추상화 발기전의 성격을 띤 ‘벽동인전’을 창립하여 전시를 하였다. 예술에 대한 열의가 고조되던 대학 4학년 때 미대 옆에 위치한 법대건물 2층에 또 하나의 실기실이 생겼다. 비좁던 실기실에서 탈피하여 4학년을 위한 이 실기실에서 국전출품을 위해 열심히 작품을 제작하였고 이 중 국전에 출품한 것이 ‘환원 A, B, C’ 시리즈 세 작품이다. 그리고 ‘환원 B’로 국가재건최고의장상을 수여했다. 당시 나의 큰 과제였던 것이 한국정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었다. 광목캔버스를 만들어 야교포수로 바탕 작업을 한 후 한국적 정서와 당시 새로운 추상회화를 잘 혼용한 것이 나만의 독창적인 환원시리즈를 탄생시켰다. 박서보, 윤명로 화백 등은 고루한 구상을 추종하고 있던 국전에 반대운동을 하였지만 나는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위 작품들을 국전에 출품하였다. 내가 추상화로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영주, 김환기, 이경성 등 시대를 앞서갔던 심사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 또한 내게는 큰 행운이었다. 이후 8년간 국전추천작가가 될 때까지 휴가 한 번 못 가고 작품에 매진했었다.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는?

모교 70주년 행사 때 후배 재학생들과 만나 강의할 시간이 있었다. 학생들이 내게 처음한 질문은 “어디로 유학 가셨었나요?”였다. 나는 한국에서만 공부한 토종이다. 그러나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해보려고 전 세계 미술대학을 방문하여 미술교육을 철저히 연구해서 학생들을 지도해왔다. 진정한 화가가 되려면 우선 재료의 기본 바탕을 탄탄히 연구해야하며 타 작가와 다른 독창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목숨 걸고 그리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김형대 동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서양화과 교수를 역임했다. 1961년에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상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이화여대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다.

동문탐방

대한민국예술원 신입회원
이철주(61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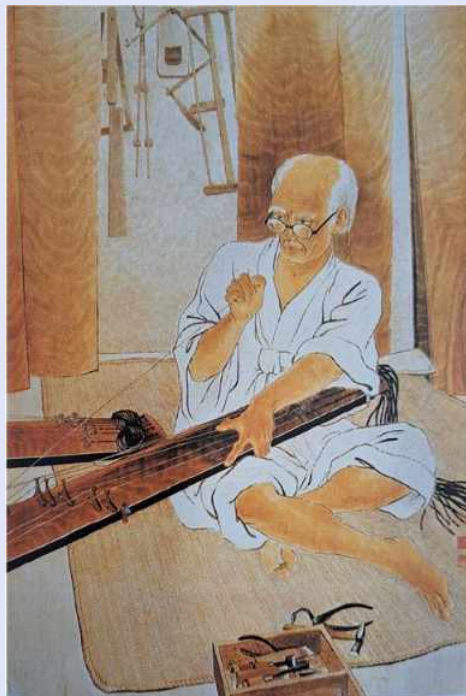
예술원회원에 선출된 소감은?

예술원회원은 오랫동안 예술에 투신해서 예술의 창달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후학을 위해 사표가 될 만한 분들을 모시는 자리인데 내가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지난 반세기의 화업을 돌아보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연대별로 기억나는 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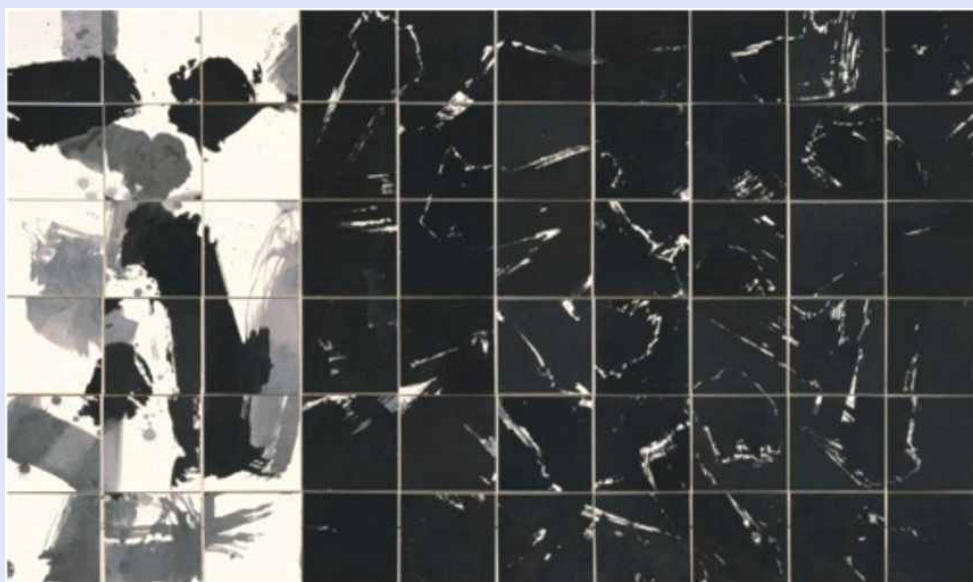
우선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를 돌아해보면 작품을 위해 사색하고

도전했던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 대학교 4학년 때 문화공보부 신인예술상 최고 특상을 받고, 이후에도 3회 연달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도 상을 받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상을 받았던 '명장'(1974/◀사진), '영일'



'(1976) 등의 인물화는 평범한 서민의 진솔한 삶의 현장을 담고자 한 작품이다. 왜 서민을 그리게 됐냐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보다 앞서 이종상 선생님이 공장지대 노동자를 다룬 대작으로 상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나만의 인물화를 그리고자 사색한 결과이다. 그 이후 나와 같이 일상의 삶을 그린 작가들의 작품이 연속으로 많이 나왔다. 월전 장우성, 남정 박노수 선생님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세련된 인물화 등이 그간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의아해했지만, 사회상의 변화에서 비롯된 자연

적인 현상인 것 같다. 80년대는 구상과 추상 사이에서 좀 더 자유로운 예술세계를 탐구한 시기였다. 대학 시절에는 앙포르멜 운동의 영향으로 비구상작업을 해왔다. 70년대에 반추상과 구상 인물화를 그린 것은 졸업 후 비구상만으로 작품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찾은 돌파구였다. 인물화가 국전에서 연달아 상을 받고, 82년 동산방화랑의 초대로 전시를 개최하며 주목을 받은 덕분에 이후 작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판매도 많이 되었던 덕분에 서교동에 작업실을 겸한 주택을 건축하여 넓은 작업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90년대에는 새로운 작업실에서 본격적인 비구상의 시대로 돌입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대학 때 경험했던 비구상의 세계로 다시 복귀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내면세계나 기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학시절에 비해 좀 더 자유로운 예술세계로 돌입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서교동 주택을 건물형태로 증축한 후에는 좀 더 격정적인 대작위주의 추상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꽃보다 아름다와라'가 이때 탄생했다. 이 작품으로 피어나는 꽃 같다는 평도 받았다. 대학시절 추상작업에 매진했던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이 시기에 꽃을 피웠다고 느꼈다. 당시 산정 서세옥 선생님은 새로운 미래를 예견하는 작품을 제작하라고 가르치셨다. 내 작업은 구상에서 추상 이후 추상에서 구상 그리고 또다시 구상에서 추상으로 회귀하는 궤적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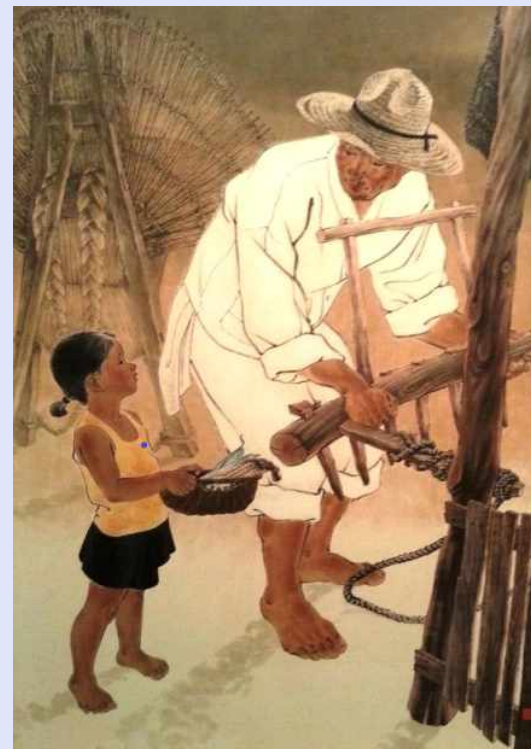
90년대에 작품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완전히 전환된 계기는?

국전에서 큰상을 연속으로 수상하고 유명화랑에서 초대전을 하면서 무척 바빴다. 그러던 중 내가 그림을 그리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대중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당시 팔기 위한 그림, 돈을 벌기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회의가 들었다. 이런 회의가 작품의 변화를 유발하였고, 퍼즐작업 <무제> 시리즈까지의 과정은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한 몸부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몇 해 전 동덕미술관에서 대규모 기증전이 있었는데, 그 뒷이야기는?

2018년 동덕미술관에서 청년작가로 되돌아간 느낌으로 평면작업은 물론 대형 설치작업을 포함한 전시회를 했다. 그동안 건강을 과신했던 내가 전시준비로 무리를 한 탓에 폐렴이 걸려 건강에 이상이 왔다. 그때 동덕미술관에 대작 100점을 기증할 기회가 생겼고, 동덕미술관이 나머지 본인 소유의 작품들도 보관하며 아카이브 차원의 전시를 여는 등 관리해줬고, 대형 화집도 제작해주었다. 이 시기에 현재의 작업실로 축소 이전했고, 이런 변화가 좀 더 차분하고 명상적인 작업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인의 작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국전에 출품했던 '모운'이 가장 애착이 간다. '모운'은 마지막 구상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당시 유치원 다니던 아들을 모델로 그렸던 작품이다. 작품이 큰상을 받은 후에는 비매품으로 집에 걸어놓고 감상했었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매를 원하여 미술관 소장품이 되었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이제는 거창한 목표를 갖는 것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려 한다. 시간과 공기가 흐르는 대로 흘러가며 사는 것이 목표이다. 올해 계획만 말하자면, 하반기에 2개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 9월 12일부터 예술원창립 70주년 기념전이 덕수궁 석조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동시에 9월 26일부터 두 달간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서 초대개인전이 계획되어 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획으로 끝내거나 타고난 재주로 쉽게 그리는 것보다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맘과 노력이 배어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철주 동문은 대한민국미술대전, 동아미술제, 중앙미술대전 심사위원, 중앙대학교학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예술원회원이다.

제19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 김춘옥(64회화)

김춘옥 동문이 이사장으로 있는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제19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매년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시 유일의 비영리 전문미술축제다. 올해는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축제를 연다. 오는 9월 21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어린이 그림대회와 공모전이 열리며,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는 전시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전시는 한국기초조형학회의 국제초대전, 기성작가와 아시아현대미술 청년작가 공모



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들의 '아시아현대미술청년작가 공모전' 전시, 광화문아트포럼 선정 올해의 작가 전시, 2024GIAF 초대작가전시등이 진행된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외에도 아티스트 토크와 국립목포대학의 디자인위크M 전시가 열린다. 아티스트 토크에서는 김형대 작가가 '걱정과 도전의 시대'를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의 모든 전시와 연계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iaf.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국현대미술의 모색 정형민(70응미)

정형민 동문이 지난 6월 30일에 신간 '한국현대미술의 모색(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해방 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미술의 양식과 사조를 다루는 연구서다. 한국 미술을 큐비즘, 앵포르멜, 단색조 회화 등 추상 양식이 도입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1960년대 말부터 주류 추상 세대에 대한 저항적 전위의식을 표명한 '신세대' 작가들의 '해프닝', '이벤트'와 같은 개념미술적 행위예술을 다룬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근대 전통론이 해방 후에 최순우, 이일 등에 의해 지속되며 변화한 과정과 함께 정부가



주관한 공공조각과 기록화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각종 팸플릿, 신문 기사, 전시평, 작가들의 발언과 비평문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를 재구성하고 분석한다. 한편 정동문은 미국웨즐리 대학에서 서양미술사를 전공하고 미시간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동양미술사로 각각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모교 동양학과 미술사 교수로 재직했고,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한국미술이론학회 회장,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 참여 박제성(98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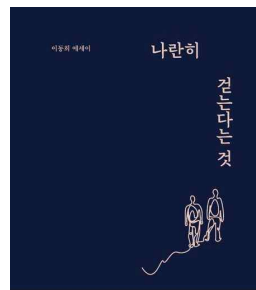
박제성 동문이 지난 8월 29일에 개막한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에 영상 연출로 참여했다. '서울라이트'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면 외벽 파사드에서 개최되는 초대형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다. 이번 서울라이트 행사는 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퓨처로그(Future Log)'를 테마로 열렸다. 9월 8일까지 이어지는 행사 기간의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DDP 전면 외벽에 두 개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상영된다. 하나는 추상 미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환기 화백의 작품과 삶을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시(時)의 시(詩)'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



어 플랫폼 DDP가 전 세계인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자 DDP의 10주년을 축하하는 편지인 'INVITATION'이다. '시(時)의 시(詩)'는 김환기 화백의 주요 작품 9점을 3개의 챕터로 나누고,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하여 표현한다. 'INVITATION'은 무한히 확장하고 변화하는 점, 선, 면의 기본요소가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현재 모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란히 걷는다는 것 이동희(15출조소)

이동희 동문의 에세이 '나란히 걷는다는 것(동치미)'이 지난 1월 30일에 출간됐다. '나란히 걷는다는 것'은 2020년 크라우드 펀딩에서 목표금액의 428%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출간된 책 '안 들리지만, 그래도'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두 번째 신작이다. '나란히 걷는다는 것'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 장소, 사람, 관념 등에 대한 이동희의 독특한 시선이 담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독자는 글을 읽어 가면서 청각장애인 저자의 시선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는 동시에, 저자가 얼마나 삶과 주변을 사랑하는지 느끼게



된다. 이 책에는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발견해볼려 애쓴 기록의 흔적이 담겨 있다. 이동희는 책의 프롤로그에서 청각장애를 갖고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 비참함 열등감이 "주변의 배려와 온정을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내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유쾌한 의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내게 말을 거는 여행의 장소' 출간 우지연(석15디자인)

우지연 동문이 지난 5월 여행 에세이 '내게 말을 거는 여행의 장소'를 출간했다. 우동문은 여러 대륙을 거닐며 마주했던 '공간과 장소'의 이야기를 따스한 문체로 풀어낸다. 때로는 맑은 영혼의 여행자의 시선으로, 때로는 웅숭깊은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여행의 장소'를 바라보면 드러나는 세상은 투명하게 빛나며, '여행'과 이국의 '공간'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아가도록 독자들을 이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도시가 존재하고 자신의 내면 깊숙이 그리는 행복의 이미지가 그 장소와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동문의 에세이는 읽는 이로 하여금 평생 사랑할 일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곳이 될지 모를 자신만의 장소들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싶게 한다. 한편, 우동문은 공간디자이너이자 여행디자이너로, 모교 공간업디자인 석사, 코넬대학교 조경건축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전공, 미술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과, 미술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프리즈서울 '아티스트 어워드' 선정 최고은(03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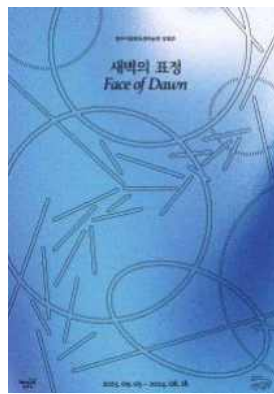
최고은 동문이 프리즈 서울 제2회 '아티스트 어워드(Artist Award)'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프리즈 아티스트 어워드는 신진 작가 혹은 중견 작가의 신작을 프리즈 서울을 통해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수상자인 최동문의 신작은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동문의 수상작 '화이트 홈 월: 웰컴(White Home Wall: Welcome)'과 '글로리아(Gloria)'는 디지털 경험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테크놀로지가 대표하는 물질성에 대한 화



두를 제시한다. 최동문은 재활용된 배기관과 에어컨 부품 등 폐기된 산업 재료를 변형해 대규모 설치 작품을 제작하는데, 재료들은 작품으로 재탄생함으로써 거대한 디지털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 기반시설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에 스며들어 있는 물질들의 복잡한 생태계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토르소'(2016, 김종영미술관, 서울) 등의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새벽의 표정 장욱진(교원 | 1918~1990)

장욱진 모교 명예교수의 전시 '새벽의 표정'이 2023년 9월 5일부터 지난 8월 18일까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층 상설전시실에서 열렸다. 전시는 1980년대 제작한 미공개작 4점을 포함한 작품 30여 점으로 구성됐다. 장교수의 작품은 그의 자연친화적 인생관을 보여준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했던 장교수는 주로 새벽에 산책하며 관찰하고 포착한 주변의 자연물을 작품에 담았다. 그렇게 그려낸 소재들은 형태가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 말년의 작품에서는 도인의



까지 모교 교수로 재직했다.

풍모를 지닌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하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이계영 양주시립미술관장은 "장욱진이 새벽 산책길에서 접한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바쁜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교수는 일본 데이코쿠미술학교를 나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모교 교수로 재직했다.

윤형근 : 담담하게 윤형근(47회화 | 1928~2007)

윤형근 동문의 전시 '윤형근: 담담하게'가 지난 7월 4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60년대 초기작부터 타계하기 전 2000년대의 대표작, 국내 미공개작, 드로잉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선보인다. 윤동문은 우리나라 전통가옥이나 고목, 흙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에 주목하고 수묵화의 농담기법을 차용하여 독특한 조형세계를 구축해 왔다. 물감이 번지는 느낌을 두세 개의 기둥으로 표현한 단색화는 여백과 대조를 이루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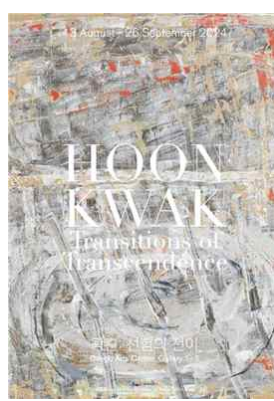


대학을 졸업했다. 영국 테이트 모던 등이 윤동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묘한 한국적 정서를 이끌어낸다. 90년대 서구의 미니멀아트를 접하면서 극단적인 단순함을 추구하며 색채와 재료의 사용에도 절제된 미의식을 지향했다. 한편 윤동문은 1947년 모교 회화과에 입학했으나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제적됐다. 이후 홍익대 서양화과로 편입하여 대학을 졸업했다. 영국 테이트 모던 등이 윤동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곽훈: 선협의 전이 곽훈(59회화)

곽훈 동문의 회고전 '곽훈: 선협의 전이'가 지난 8월 13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에서 열린다. 2008년부터 매년 대구화단의 발전에 기여한 원로작가 회고전을 개최해온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올해는 50여 년간 한국적인 정서와 불교 등 동양 철학을 근간으로 드로잉,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성과 매체를 다루며 독자적인 작업세계를 구축한 곽동문을 선정해 전시를 마련했다. 곽동문은 모교 졸업 후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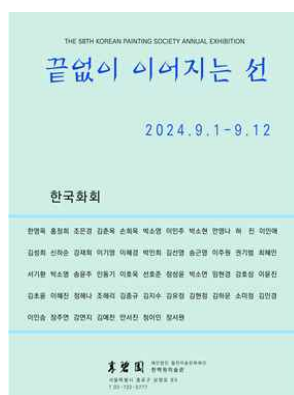


실험미술 1세대이자 '한국아방가르드협회' 창립멤버로 활동했으며, 1970년 신문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수학했으며 1981년 LA.시립미술관 'Newcomers 81'을 통해 미국화단에 데뷔했다. 이번 전시는 곽동문의 대표적인 회화 연작 및 조각, 영상, 설치 작업을 포함한 신작으로 구성되어 총체적인 작업세계를 선보이며 오는 9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실험미술 1세대이자 '한국아방가르드협회' 창립멤버로 활동했으며, 1970년 신문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수학했으며 1981년 LA.시립미술관 'Newcomers 81'을 통해 미국화단에 데뷔했다. 이번 전시는 곽동문의 대표적인 회화 연작 및 조각, 영상, 설치 작업을 포함한 신작으로 구성되어 총체적인 작업세계를 선보이며 오는 9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제58회 한국화회전 '끝없이 이어지는 선' 한영옥(58회화) 외

제58회 한국화회 전시 '끝없이 이어지는 선(線)'이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삼청동 한벽원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국화회'는 정탁영(56회화), 송영방(55회화), 신영상(54회화), 이규선(57회화) 등 모교 동양화과 동문들이 1967년 '한국화의 새로운 재료와 기법, 표현 사고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현대 회화로서의 변신을 이룩'하는 것을 창립 취지로 결성한 단체이다. 1967년 5월 신문회관 회관에서 첫 번째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제58회 전시를 앞두고 있다. 미술비평가 이건수는 "'한국화회'는 원로작가들을 재조명하고 젊은 회원의 유입을 확장해



가면서 안으로는 현대적 수묵정신의 계승을, 밖으로는 타 장르와의 소통을 통한 한국화의 외연을 전개하여 고유한 한국화의 맥을 이어가는 주요한 단체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세기를 훌쩍 넘어 한국미술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제58회 한국화회 전시를 통해 폭넓은 세대가 꾸미는 다채로운 한국화의 묘미를 삼청동 한벽원미술관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벽원미술관(서울 종로구 삼청로 83)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가면서 안으로는 현대적 수묵정신의 계승을, 밖으로는 타 장르와의 소통을 통한 한국화의 외연을 전개하여 고유한 한국화의 맥을 이어가는 주요한 단체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세기를 훌쩍 넘어 한국미술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제58회 한국화회 전시를 통해 폭넓은 세대가 꾸미는 다채로운 한국화의 묘미를 삼청동 한벽원미술관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벽원미술관(서울 종로구 삼청로 83)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THE 58TH KOREAN PAINTING SOCIETY ANNUAL EXHIBITION

2024.9.1 - 9.12
10:00-18:00

끝없이 이어지는 선

한벽원 미술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83

한국화회

한영옥 홍정희 조은경 김춘옥 손희옥 박소영 이민주 박소현 안영나 허진 이인애 김성희 신하순 강재희 이기영 이해경 박민희
김선영 송근영 이주원 권기범 최혜인 서기환 박소영 송윤주 민동기 이호욱 선호준 정성운 박소연 임현경 강호성 이윤진 김초운
이혜진 정해나 조해리 김종규 김지수 김유정 김현정 김하운 소미정 김민경 이인승 장주연 강연지 김예찬 안서진 청이인 정서원

寒碧園 재단법인 월전미술문화재단 한벽원미술관

기억속의 존재 차명희(64회화)

차동문의 개인전 '기억속의 존재'가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차동문은 흑백의 색채로 2차원에 자연을 표현한다. 자연은 우리들의 시각에 대응하고 있는 것만이 아닌,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오감 전부에 대응한다. 차동문은 이러한 전감각적인 자연을 포착하고자 한다. 목탄과 백색 아크릴 물감, 그리고 종이를 소재로 한 화면에는 자연의 구체적인 형상이 일절 그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생생히 눈



에 보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한국화의 전통에서 출발한 차동문의 작품은 백과 흑이라는 색채로 2차원에서 추상을 나타낸다. 자연의 구체적인 형상을 토대로 해서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생생하게 자연의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한편 차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금산갤러리(서울, 2024) 등에서 26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120여 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운영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물질의 생명력, 한운성 한운성(65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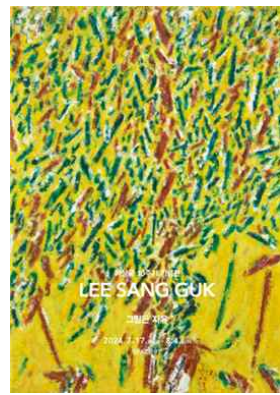
한운성 동문의 전시 '물질의 생명력, 한운성'이 지난 6월 4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김제벽천미술관에서 열린다. 본 전시는 김제벽천미술관과 전북도립미술관의 공동기획 전시로, 2021년 전북도립미술관에 기증된 한동문의 작품 중 10점을 소개한다. 전시작은 2009년부터 2020년대까지의 회화 작업 중에서 시대별 연작인 '과일'과 '꽃'을 주제로 선별됐다. 한동문의 그림은 일상에서 발견한 대상의 '정면'을 단색 배경의 중앙에 재현한다. 그의 작업에서 작가는 대



상을 응시하고, 그림으로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주체이다. 응시하는 주체, 응시의 대상, 그리고 그림을 통한 '드러냄'이 작업의 세 축을 이룬다. 주체가 응시하는 대상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타자이다. 대상/타자를 바라봄으로써 그 정체성을 밝히는 본질 추구의 과정이 작업에 긴장감과 생명력을 부여한다. 한편 한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타일러 미술대학 대학원을 판화전공으로 졸업했다.

이상국 10주기 기념전 이상국(67회화 | 1947~2014)

이상국 동문의 10주기 기념전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주변 서민들의 생활 모습과 자연 풍경을 독특한 조형과 서정적인 표현으로 화폭에 담았다. 이번 전시는 4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여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자화상을 포함한 전 생애의 대표작을 시기별로 소개했다. 이 중에는 이동문이 작고 일주일 전에 완성한 미공개 유작 포함됐다. 이동문의 작업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는 '삶'이다. 태어나고 자란 서울 서북부의 1970-80년대 풍경(산동네, 공장지대 등)과 일상에서 만나는 주변



이웃들, 자연 풍경을 작업의 주요 소재로 삼았다. 모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이동문은 동양화에 뿌리를 둔 구상에서 출발했지만, 대상을 해체하고 그것을 다시 구조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독자적인 추상 양식을 확립했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된 유작 '무제'는 네 점의 연작으로 구성된다. 이 작품은 자연을 '해체'하여 대상의 본질에 집중하는 행위가 점차 어떻게 진화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작품 활동에 매진했던 이동문의 '생'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놀자展 김소선(63조소) 박덕실(81회화) 민수정(82회화)

김소선, 박덕실, 민수정 동문이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소선갤러리에서 '놀자展'을 연다. 세 동문은 그동안 해왔던 작품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담은 작품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관객 참여 공동작업은 작업을 통해 전시를 찾는 이들과 '신나게 놀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미로 마련되었다. '막상 놀아보자 하니 어떻게 놀아야 하나?' 하고 세 동문은 웃음 짓는다. 즐거운 고민은 준비 기간에 이들이 소마미



술관에 모여서 찍은 사진에도 고스란히 담겼고, 그 사진으로 전시 포스터를 만들었다. 한편, 소선갤러리는 김동문이 신혼 때 살던 집을 개조하여 개관한 전시공간이다. 김동문은 갤러리내일(2022), 진부령미술관(2018), 영국 런던 한국문화원(2008), 노르웨이 베르겐국립박물관(2008)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며 우리 민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제1회 광주도자엑스포(2000) 홍보작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가천대학교 사회교육원 위촉교수를 역임했다.

김소선 박덕실 민수정

놀자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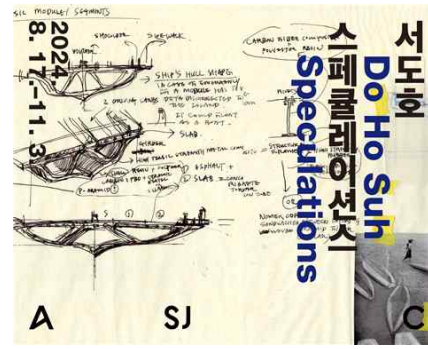
2024.9.27 - 10.27

소선갤러리
서울시 중구 퇴계로 44길 19
02-2272-4072
010-8873-4072
→ 놀 사람 모여라

후원광고

서도호: 스펙큘레이션 서도호(81회화)

서도호 동문의 전시 '서도호: 스펙큘레이션'가 아트선재센터에서 17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열린다. 서동문의 삶과 세상에 관한 성찰, 미래에 대한 상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스펙큘레이션(speculation)'을 사유의 전략으로 삼아 작가가 끊임없이 탐구해 온 시간, 공간, 기억, 움직임의 주제를 재구성한다. 사변, 추론, 사색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 '스펙큘레이션'은 개인과 공동체,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서동문의 숙고와 가설, 상상력의 작동 방



명성을 쌓아왔다.

식을 함축한다. 서동문은 사변적인 사유를 통해 사회적 허위와 불평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우리가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들을 탐험한다. 한편, 모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한 서동문은 지난 20여 년간 독창적이며, 흥미로운 개념의 정교한 조각, 설치, 영상 작업을 통해 국제적인

투명하고 향기 나는 천사의 날개 빛깔처럼 신미경(86조소)

신미경 동문의 개인전 '투명하고 향기 나는 천사의 날개 빛깔처럼'이 지난 6월 4일부터 2025년 5월 5일까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에서 열린다. 신동문은 비누를 조각의 재료로 사용하여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왔다. 전시의 주제인 '천사'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종교적 표상이자, 예술적, 문학적 상상을 통해 우리의 인식 속에 익숙하게 자리하게 된 상징적인 존재이다. 엔젤이라는 이름의 향을 우연히 접하면서 천사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신동문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 사이에 있는 대상'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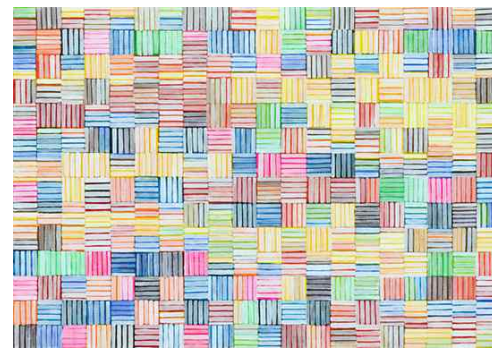


학위를 취득했다.

의 천사를 작품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천사가 가진 의미에 주목한다. 비누가 가진 투명함과 불투명함을 오가는 물성, 닳아 없어지는 성질, 그리고 향기는 천상과 지상의 중간적 존재인 천사의 상징성과 연결되어 공감각적으로 '천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 슬레이드스쿨 조소과와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석사

PALIMPSEST 덧쓰기 이상은(86서양)

이상은 동문의 전시 'PALIMPSEST 덧쓰기'가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지난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이동문의 시간 관련 작업은 삶의 경험을 의미하는 수많은 선들을 다양한 색으로 쌓아 가는 작업이다. 이는 작가에게 있었던 하루하루의 수많은 경험들이 기억의 조각으로 화면 안에서 집적됨을 의미한다. 다양한 색과 선들이 화면 안에 쌓여지는 작업은 달력에서 보여주는 하루, 한 달, 1년의 시간처럼 질서 정연하게 나열되고 하고 때로는 나의 머릿속 기억처럼 두서없이 뒤엉키어 쌓여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집적된 시간의



흔적들은 쌓고 지워가고 다시 쌓아가는 반복된 작업을 통해 지워지기도 하고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색채와 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의 시선에서 과거의 여러 기억과 경험들을 여러 층으로 다시 덧쓰는 것이 요즘 작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시간 쌓기 작업이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으며 세계 각국에서 36회의 개인전을 진행하고 37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아트 오브 노이즈 오창근(90조소)

오창근 동문의 전시 '아트 오브 노이즈'가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에서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오동문의 신작 'Starry Stage II'를 선보였다. 'Starry Stage II'는 관람객의 모습을 화면에 투영하여 몸의 이동이나 제스처의 변화에 따라 별빛 패턴과 피아노 연주 음악을 생성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설치 작품이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음악 관련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융합예술활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120여 회 참가했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획됐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 그리고 독일 칼스루 조형대학교 대학원의 미디어아트 학과를 졸업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지능형융합시스템 전공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6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국내외 기획전 및 단체전에

숨길 The Path of Breath 최혜인(90서양)

최혜인 동문의 전시 '숨길 The Path of Breath'가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갤러리 도울에서 열린다. 최동문은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몸으로 받아들여 생명의 동력을 얻는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땅에서 나는 먹거리를 소재로 생명성을 탐구한다. 이번 전시에서 최동문은 특히 생명의 필수 조건인 '숨과 함께 숨이 지나는 길인 '숨길'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연의 숨길이라고 볼 수 있는 절기를 통해 그물망처럼 얽혀 공생하는 생명과 그 변화를 다양한 재료로 표현한 전시이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 대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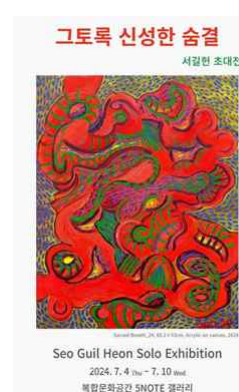


생명수가 내리는 곡우, 해가 가장 긴 하지, 그리고 달이 가장 긴 동지 등 대자연의 들숨과 날숨이 만들어 낸 절기에 맞춰 그 숨의 길가에 자리한 곡식과 채소들의 풍경이 화폭 위에서 만화경처럼 펼쳐진다. 자연이 내뿜는 변화무쌍한 숨의 통로에 위치해 역시 다채롭게 변화하며 자신만의 숨과 숨길을 창조하는 생명을 느껴보길 바란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모교에서 미술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생명수가 내리는 곡우, 해가 가장 긴 하지, 그리고 달이 가장 긴 동지 등 대자연의 들숨과 날숨이 만들어 낸 절기에 맞춰 그 숨의 길가에 자리한 곡식과 채소들의 풍경이 화폭 위에서 만화경처럼 펼쳐진다. 자연이 내뿜는 변화무쌍한 숨의 통로에 위치해 역시 다채롭게 변화하며 자신만의 숨과 숨길을 창조하는 생명을 느껴보길 바란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모교에서 미술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그토록 신성한 숨결 서길현(91조소)

서길현 동문의 초대전 '그토록 신성한 숨결'이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춘천 5NOTE 갤러리에서 열렸다. 강렬한 색채의 추상 회화로 알려진 서동문은 응축적 색채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인간의 정신, 그리고 본질을 탐구한다. 그의 철학적 사유와 성찰은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나선형의 선으로 표현된다. 선은 무한히 집중하고 분산되는 형상으로서, 삶에 대한 경이를 회화 작업의 바닥없는 미궁으로 이끌어 간다. 전시는 서동문의 회화가 "생의 본질에 대한 의문으로 지어진 불안의 집과 같다"라고 소개한다. 서동문의 작업에는



한 얼굴을 넘어서 서동문이 꿈꿔 온 '너그러운 숨결'이자 '신성한 숨결'이다.

삶의 희비극이 담겨있다. 그러나 그는 삶의 단편적인 사건이나 감정을 담기 보다는 본질에 닿고자한다. 작품은 인간의 삶에 닿는 신의 손길을 나선형의 형상으로 은유한다. 신은 너그럽고 무심한 손으로 삶의 물레를 돌려 세상의 피륙을 짠다. 서동문에게 그림은 신의 숨결이 수정망토처럼 펼쳐는 마술의 총체이다. 그의 회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괴한가 하면 익살스럽고, 엽기적인 동시에 성스러운 표정 같은 화면은 걸음으로 드러나는 익숙한 얼굴을 넘어서 서동문이 꿈꿔 온 '너그러운 숨결'이자 '신성한 숨결'이다.

보임 속에 보이지 않음 김현정(94주소)

김현정 동문의 전시 '보임 속에 보이지 않음'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종로구 더아트나인 갤러리 전관에서 열렸다. 재미작가인 김동문은 한국에서 25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개인전에서 미국생활에서 겪었던 소통의 장애를 시각적 언어로 풀어 작업한 '블라인드 인 아트' 시리즈를 선보인다. '블라인드 인 아트' 시리즈는 점자의 점을 이용하여 장식적이거나 추상적인 표면을 만들고 그 이면에 언어의 형식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관객참여 작업으로 알려진



김동문은 진주, 금, 보석 등 귀중함을 상징하는 재료를 주로 작업에 사용하며 우리 삶의 중요한 언어들이 지닌 가치를 그의 방식으로 시각화한다. 현재 김동문의 작업은 본인의 정체성 탐구의 시기를 거쳐 사회에서의 개인의 가치를 질문하는 작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착용 조각' 시리즈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로, 초기 작업부터 근작까지 감상하며 작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물가에서 임재형(08서양)

임재형 동문의 개인전 '물가에서'가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열렸다. 물가는 물과 땅의 중간지대로, 땅에 속한 채 물을 향하는 자리다. 임동문은 개인적, 사회적 상실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며 '사라짐'과 '그리기'의 문제를 연관 지어 탐구한다. 남겨진 것 앞에서 부재한 것을 짐작해봄으로써 '사라짐'을 인식하는 임동문의 방식은 분명한 자국을 남기면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모호함을 좇는 '그리기'의 과정과 다른 듯 닮아 있다. 물은 그 자체로 어떤 모양을 갖지 않고, 그저 주변 환경에



의해, 보는 이의 위치에 의해, 일시적인 모습과 윤곽을 갖는다. 임동문은 사물과 장면의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보다 그것을 보는 개인의 경험과 관점에 의해 좌우되며 변화한다고 말한다. 전시는 물가의 장면들이 이루는 맥락을 통해 상실 이후의 개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낸다. '에둘러 그리기'라 할 만한 작업의 형식은 사라진 것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발로이자, 알 수 없는 것을 작업으로 다루기 위한 윤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임동문은 설명한다.

매복니 박종현(15서양)

박종현 동문의 개인전 '매복니'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아트스페이스 보안2에서 열렸다. 박동문은 실재와 실제 사이에 있는 이름 모를 심상에 집중한다. 이 심상은 징후와 배후, 심연과 은폐, 양가와 폐쇄, 이중, 모호, 징조, 오해, 오류, 섬뜩함이라는 말로 재현과 이미지 앞에 따라붙다. 그는 선언되지 않은 채 뒤섞여버린 것들을 매만지며 다시 해석한다. 때로는 연고 없는 배우의 얼굴로, 연극의 한 장면으로, 유년기의 바랜 종지와 가족으로, 경위도 없이 찾아오는 무표정한 심상들과 다르게 그의 해석 안에는 분명 어떠한 표정이



존재할 것이며, 표면의 밑 그 언저리에는 동인을 반사하는 지표들이 깔려 있으리라. 그러나 그는 재현해 내는 이미지에서 자신의 얼굴을 은닉한다. 그에게 찾아 온 심상들이 과잉된 환상의 찌꺼기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가 포섭한 이미지의 피확성과 가확성으로 드러난다. 이미지는 왜곡과 굴절을 거쳐 틀에 안착되고, 냉담한 표면으로 우리를 응시함으로써 우리를 자신의 공백 속으로 몰아넣는다.

마음이 고양이고양 박도현(16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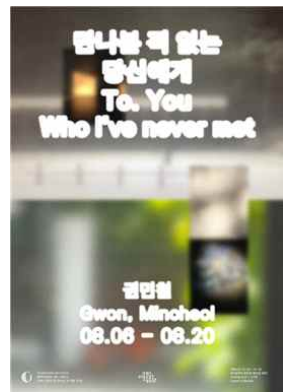
박도현 동문이 참여한 단체전 '마음이 고양이고양'이 지난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 갤러리 1, 2관에서 열렸다. 본 전시는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 돈의문박물관마을, 갤러리아미디, 출판사 문학동네가 협력하여 개최한 특별전이다. '마음이 고양이고양'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과 문학동네 그림책의 원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한 사진 작품 등을 선보였다. 시민 갤러리의 1관은 신진 작가 6인(강병준, 박도현, 박별, 이경아, 이윤수, 최



하영)이 고양이와 가진 특별한 인연과 순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채워졌고, 2관은 그림책 작가 이주희의 책 '어떡하지?! 고양이'(2021, 문학동네) 원화와 '고양이 작가 이용한의 신작 '이 아이는 자라서 이렇게 됩니다'(2023, 이야기 장수) 속 사진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시민들에게 사전 공모한 고양이 사진이 곳곳에 전시됐고, 전시장의 창에 직접 자신만의 고양이를 그릴 수 있는 체험구역이 조성됐다.

만나본 적 없는 당신에게 권민철(석19조소)

권민철 동문의 전시 '만나본 적 없는 당신에게'가 지난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창성동 플루리포텐트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다. 본 전시는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개최됐다. 권동문은 일상적 이미지들이 '하나의 평온한 상태'를 표현하는 이상적 이미지로 확장할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둘러싼 일상적인 이미지에 무의식적으로 공유되는 서정성이 존재한다는 추정에서 기인한다. 상투적 표면의 일상적 이미지와 개인이 느끼는 서정성의 연결은 현실과 이상적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이상적인 일상 장면을 향한 개인의 노



스텔지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편지의 서문과 같은 권동문이 쓴 전시의 서문은 이러한 서정성을 극대화한다. "To, 만나본 적 없는 당신에게 '가, '나, '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 코인 세탁소입니다. 시간은 밤이고요. 방금 막 세탁기에 동전을 넣고 빨래가 마칠길 기다리고 있어요. 한 2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고, 마침 눈이 내리는 밤이라 편지를 쓰기 좋은 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털요정 최가은(17조소) 조은석(19조소)

최고래(최가은) 동문과 조은석 동문의 전시 '털요정'이 지난 8월 8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의 2024년 기획전시 공모선정작인 털요정의 참여작가인 두 동문은 다양한 종류의 털과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털이 가질 수 있는 의미의 확장성을 실험한다. 두 작가는 전시를 통해 털요정이 되어, 최동문은 동물의 털로 사람간의 관계성을 이야기 하고 조동문은 동물의 형상에 사람의 털을 더한다. 털은 살아 있는 것으로부터 자라난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흔적을 남긴다. 위치한 공



간, 대상, 부위에 따라 털에 대한 인식은 달라진다. 이는 작업과도 닮은 구석이 있다. 전시에서 털과 작업은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넘어 이를 둘러싼 환경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전시기간 중 최동문은 8월 16일에 '머리카락 드로잉하기', 조동문은 8월 17일에 '털쟁이 동물 만들기'를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조소과 주전공, 서양화 부전공으로 졸업하여 동대학원 조소과에 재학 중이며, 조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9월의 전시



일어나 2024년이야

류성실(13조소) 외 2인
3.21-2025.2.23
백남준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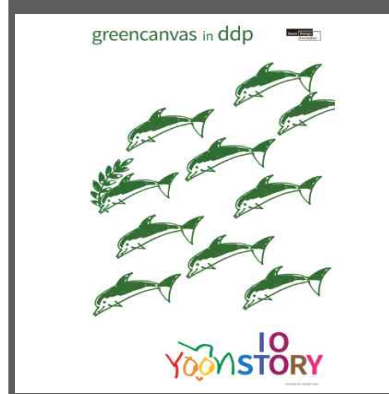
흰 : 원형

최만린(54회화)
3.28-11.2
최만린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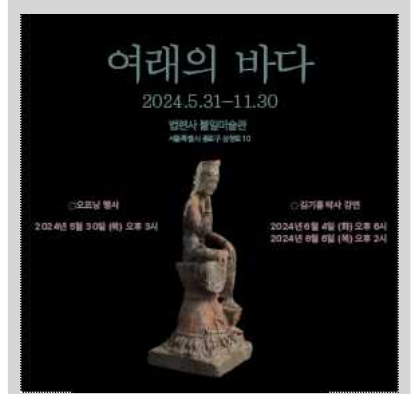
O : 에릭 오 레트로스펙티브

에릭오(오수형02서양)
4.25-12.31
제주 하우스오브레퓨즈



greencanvas in ddp

윤호섭(62응미)
5.13-9.29
DDP 둘레길갤러리



여래의 바다

김기홍(75회화) 외 1인
5.31-11.30
법연사 불일미술관



물질의 생명력

한운성(65회화)
6.4-10.13
김제벽천미술관



투명하고 향기 나는 천사의 날개 빛깔처럼

정수연(18동양)
6.4-2025.5.5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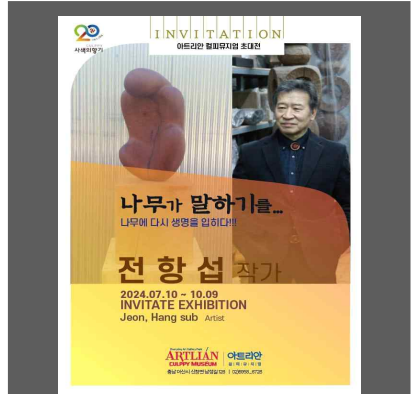
이기철:작업에서 연습으로

이기철(83조소)
6.25-9.29
대구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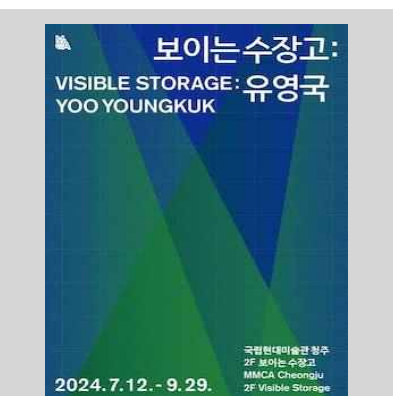
윤형근 : 담담하게

윤형근(47회화)
7.4-9.29
청주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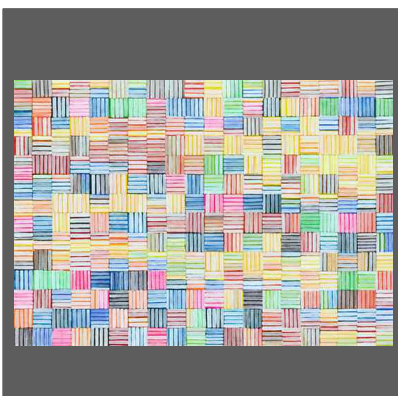
나무가 말하기를...

전항섭(79조소)
7.10-10.9
아트리안 컬피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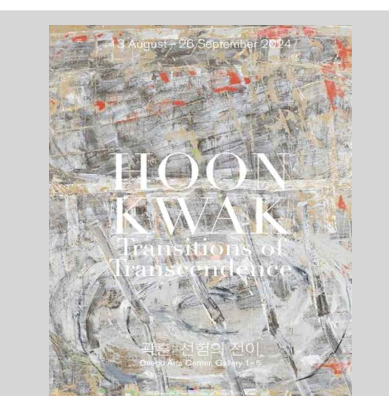
보이는 수장고 : 유영국

유영국(교원)
7.12-9.29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PALIMPSEST 덧쓰기

이상은(86서양)
8.2-10.31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곽훈 : 선함의 전이

곽훈(59회화)
8.13-9.26
대구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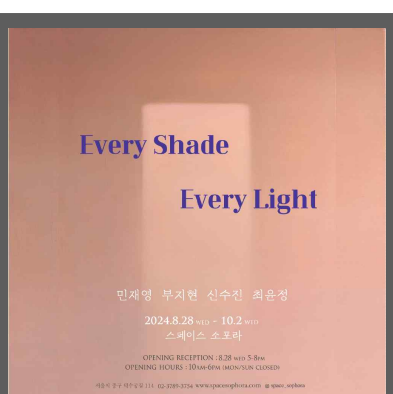
서도호: 스펙클레이션스

전항섭(79조소)
8.17-11.3
아트선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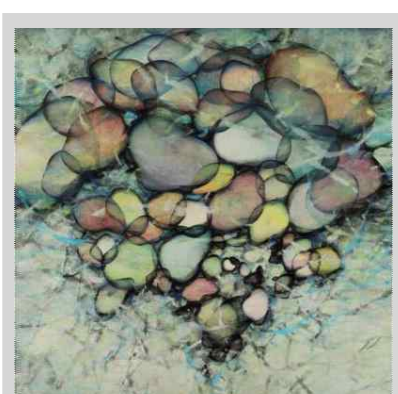
기억 속의 존재

차명희(64회화)
8.28-9.27
금산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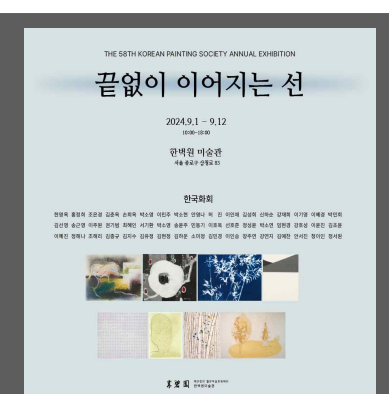
Every Shade Every Light

신수진(91서양) 외
8.28-10.2
스페이스 소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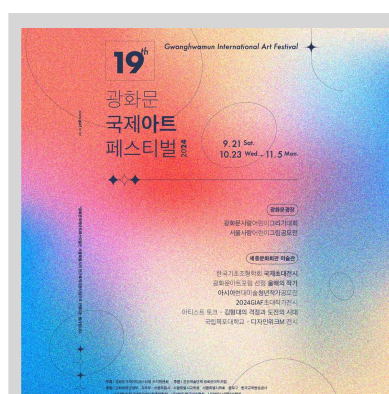
숨길 The Path of Breath

최혜인(90서양)
8.30-9.22
갤러리 도올



끝없이 이어지는 선

한영옥(58회화) 외
9.1-9.12
한백원 미술관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김춘옥(64회화) 외
9.21, 10.23-11.5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놀자展

김소선(63조소) 외
9.27-10.27
소선갤러리